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매달 15일  
가격조정일 전후 2~3일  
동안에 집중발생이 예상되는  
가수요와 출하지연이다.

**은 국민과** 정부 그리고 관련업계의 큰 관심 속에, 지난 2월15일 유가연동제가 최초로 시행되었다. 마침 5일간의 긴 설연휴를 끝낸 직후의 여유속에 비록 소폭이지만 거의 전유종의 가격이 인하되었다.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수급상 혼란도 없었던 점을 볼 때 이 새로운 제도의 첫출발은 비교적 순조롭고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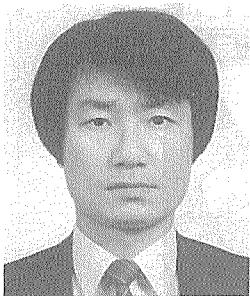
유가연동제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배경이나 필요성·내용등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터인지라, 여기서는 국내 석유제품 수요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는 정유사의 수급업무담당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석유제품 수급운영상 예상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매월 15일 가격조정일 전후 2~3일 동안에 집중발생이 예상되는 가수요와 출하지연이다. 즉, 전월의 원유도입가격과 환율을 근간으로 하는 가격산정공식이 공표됨에 따라 가정에서 산업체에 이르는 모든 소비계층은 언론보도나 정유회사에 문의 등 각종 정보통로를 통하여 당월가격이 인상·인하될지 여부는 물론 개략적인 조정율도 사전에 파악하게 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인상예상시에는 조기구매하고, 인하예상시에는 구매지연을 추구함으로써 가수요와 출하지연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가격변동 정보에 대한 사전인지가 가능한 여건하에서 소비자의 이러한 구매행태는 일면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과거 유가조정시에도 나타났던 현상이나, 과거와 다른 것은 발생빈도와 가격변동 시기와 폭에 대한 사전정보 획득의 차이이다. 이는 유가조정주기가 과거 평균 1년인데 비하여 향후에는 1개월인 점과 조정폭이나 시기가 과거에는 정부정책과 연계결정되어 불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공식에 따라 매월 15일 시행되는 점을 비교하여 이해될 수 있겠으며, 최근 기업은 물론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걸친 경제인식 확산, 원가절

## 유가연동제, 그 이후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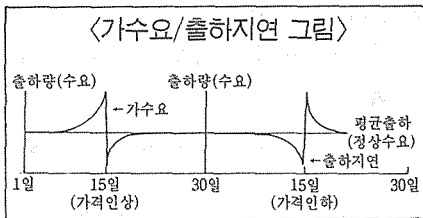
# 유가연동제와 수급안정



金慶勉  
<(주)유공 수급팀 과장>

감 추구성향 추세와 맞물려서 과거보다 계획적인 구매활동이 가능해진 반면, 가수요와 출하지연 규모는 증가하고 물류수급 안정성이 저하되어 정유사의 공급책임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수요와 출하지연 물량을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예년의 추세 및 소비자 저장능력등을 감안할 때, 제품별로 2~3.5일분 정도로 예상되는데 (유가 5% 등락 가정), 이는 유가조정일 전후 2~3일 동안에는 정상 출하량의 2배나 되는 물량이 집중 출하됨을 의미한다.



물론 정유사는 중장기적인 수요증가를 고려하여 물류공급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확충 함으로써 현재 전국 제품저장능력은 20일분 이상의 재고운영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2~3.5일 정도의 가수요와 지연출하가 발생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저장시설이 영세하고 철도수송등으로 수송력 증대에 한계가 있는 일부지역의 경우 유가 조정 시점을 전후하여 공급부족 발생이 예상되며, 정유사는 이를 해결코자 저유시설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은 물론 부지 확보와 시공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예기치 않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등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비용절감 추구에 기

환경여건의 변화가 즉시  
피드백되며 일련의 계획된  
과정 아래 활동하는 매우  
동태적인 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인한 가수요와 출하지연이 지나쳐서 저유소와 주유소의 재고가 품절될 경우 유류구매 불능으로 인한 산업체나 민간 실수요자의 불만과 함께 막대한 피해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정유사는 물론 소비자, 정부 모두가 이러한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로서는 유가변동에 따른 구입비용 최소화 추구를 하되, 출하가 집중되는 15일에 압박한 구매를 지양하고 남보다 몇일 빠른 10~12일경 사전계획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판매소의 번잡함이 줄어 기다리거나 기분 상하는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원하는 물량을 모두 구입할 수 있어서 좋으며, 가수요와 출하지연의 일시집중을 분산시켜 주므로 15일 전후의 유통혼란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부로서는 정유사의 수급안정화를 위한 물류설비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아울러 유통단계 매점매석의 철저한 감시, 정부비축 석유제품의 규모확대와 탄력적운영, 현재 건설중인 남북송유관의 조기완공 및 유가연동제의 시행상 문제점의 지속적인 파악과

<수급안정을 위한 주체별 추진필요 사항>

	중점추진 개선방향
정 유 사	· 공급 취약지역 대책수립 (저장시설 증설, 출하지조정) · 수송장비 확충/개선 · 수요예측기능 강화 및 안정기조 수급운영
정 부	· 매점매석의 철저한 감시 · 정부비축유 규모확대 및 수급불안시 적정량 방출 · 남북송유관 조기 완공 · 물류시설 증대·개선 인허가 지원
소 비 자	· 사전계획구매 : 인상시 10~12일, 인하시 17~18일 구매 · 과도한 사재기 자제등 건전구매



보완이 요망된다.

제도의 보완과 관련하여 관심사항은 가격변동의 폭이다. 이상급등의 경우에는 기금·관세조정등 별도대책을 구상중이라 하나, 그폭이 미미할 경우 가격조정의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가격변동 내역의 통보 및 주유소 가격표 조정등 세부시행 단계에서의 비효율과 소비자에게 미칠 심리적부담, 기수요발생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가격변동 요인을 다음달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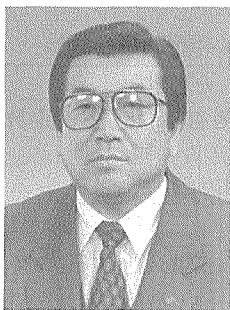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연동(連動)'이란 단어에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환경 여건의

변화가 즉시 Feedback되며, 일련의 계획된 과정 아래 활동하는 매우 동태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가연동제는 과거의 가격제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급자에서 최종소비자에 이르는 석유제품의 물류흐름의 원활, 즉 수급안정에 있는 것임을 다시 인식하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통하여 이 새로운 유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나아가 유가자유화 제도도 조기에 도입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맺는다. ◆

유가연동제, 그 이후③

# 연동제 이후 주유소의 운영



李炳善  
(협회대표)

유류업계에 손을 댄지 어언 30년. 우연한 기회에 유공대리점 大田에 소재하고 있는 충남 광유회사와 인연을 맺어 뒷박장수로 시작하여 현재 첨단 주유소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오늘에 이르렀다.

시대상황과 변천에 따르면서 건디기 어려웠던 고통을 참으면서 노력한 결과가 지금의 첨단주유소 월 판매량 4,000 드럼을 판매하는 업소가 된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대덕연구 단지내 소재하고 있으면서 '93세계박람회를 치루었고, 별다른 손색없이 고객을 유치하고 남달리 총애를 받으면서 명문 주유소로 지난해 유공에서 선정한 베스트 업소로 대전·충남을 대표하여 수상한 예도 있다.

계속 발전하는 유류업계의 뒷받침에 기승한 부담을 안고 시설물, 서비스기기, 건